

스스로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맑고 깨끗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6월에 열리게 됩니다. 민족화합과 종교간의 교류도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하는지 명심해 주십시오.

▲우선 영아가 화합하고 영남과 호남이 화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화합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남북의 같은 동족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와 '너'를 가리면 대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감싸고 가는 것이 같은 동포로서의 도리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화합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자비 사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넘치 않으면 싸울 것이 없습니다. 사상이 무너뜨리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화동주(身和同住) 구화무쟁(口和無爭) 의지무위(意知無違) 견지동해

물라도 학교문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학교교육은 오염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들과 기성세대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경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지식을 찾아 나섭니다. 스승을 찾는 이유는 스승으로부터 교화받고 보살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곧 인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학교는 선지식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가 선지식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학생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15년 넘게 승가교육에 몸담아 오신 경험에 비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은 곧 '수신제가(修身齊家)'입니다. 자기 몸통이를 닦는 것이죠. 우리가 경전을 배우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선을 배우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



○법공스님은 틈나대로 대웅전 앞 돌 정원의 꽃들과 대화를 한다. 세상 만물 '이심전심' 아닌 것이 없다고 스님은 말한다.

왜 공경해야 하는지, 장애에 어떤 사안이 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참교육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 스님께서 공부하시던 때에는 지금 교육이 너무나 다른 것 같다고 느껴 지실텐데요.

▲그래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인연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승을 잘 만나는 것처럼 귀한 복이 없어요.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나는 운허스님께 경을 배우고 대강백이신 박한영스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을 깨운 사 대원암에서 한영스님에게 받았던 가르침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당시 깨운 사 대원암은 가장 유명한 강원이었는데요. 은사스님께서는 많은 지식을 얻도록 하기 보다는 올바른 지식을 얻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경전을 보는 것 자체가 계·정·혜 삼학을 닦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고 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일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을 믿었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노력했습니다. 무언이든 하거나 할 때 배고프고 추웠던 고통들이 일순간 사라지니 '아, 이런 게 공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스승께 한없이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진정한 스승도 없고 고통을 환희심을 바꾸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 불교의 사회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수행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역할도 종교인들의 몫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의 사회참여도 이런 방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답=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o@buddhapia.com)

고침 267호 '큰 스님과의 대화' 호란스님은 오봉사 조실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저 사람이 나다' 생각하면

다툼 생기지 않고 공존의 길

(見同解) 제지동해(戒知同遵) 이화동균(利和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육화(六和)'는 불교의 화합정신이자 부처님의 사상을 나타낸 말인데 '몸으로는 화합해야 같이 살 수 있고, 입으로는 화합해야 싸움이 없다. 뜻으로는 화합해야 어긋남이 없고, 소견이 화합해야 이해가 깊고, 행색이 화합해야 같이 따라갈 수가 있고 이익을 보며 화합해야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육화'의 정신으로 남북한이 머리를 맞댄다면 동일은 분명 앞당겨질 것입니다.

- 정치도 불안하지만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격정스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오랫동안 강원에 있어서인지는



○'육화' 정신이 약화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강조하는 법공스님.

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광대한 자비심을 품을수록 무익합니다. 실천해야 그것이 비로소 자비 아니겠습니까?

강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항상 강조한 것은 '착한 심성'이었습니다. 착한 심성을 갖게 되면 '너'와 '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극락입니다. 착하게 사는데 미운 것이 어디 있고, 고운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착한 심성에서만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깨달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왜 하는지, 스승은

지옥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옥스님

心心心難可尋(심심심난가심) 마음마음 한 마음은 정말 찾기 어렵네.
暫時 偏法界(관시 변법계) 꼭 쫓아내면 호호탕탕하여 법계에 충만하고
攄也 不容針(차야 불용침) 좁게 좁으면 현현밀밀하여 바늘 하나도 용납치 아니하네
我本求心 不求佛(아본구심 불구불) 내 본래 구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구하지 말지니
了知三界 空無物(요지삼계 공무물) 삼계는 공하여 한 물건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느니라.

달마의 <혈맥론(血脈論)>중 한 부분이다. 나는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 강연 생활을 좀도 하지 않고 방황하던 때였으니까. 홀연 발길 닿는 대로 인연따라 간 곳이 금정산 원효암(元曉庵)이었다. 여기서 겨울 한철을 지내면서 방으로는 저녁 예불, 후에 지유(知有) 스님으로부터 선문활요(禪門撮要) 앞부분을 배웠는데 지금까지도 달마의 혈맥론이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원효암 주불 관세음보살상에 대한 영험스런 이야기가 지금도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취도 않고 성공적 수술

20여년 장좌불와 오후불식

일제시대 때의 일이다. 관세음보살상이 뛰어난서 당시 고위직에 있던 이가 일본으로 모셔가서 집안에 모셔두었는데 불이 나버렸다. 다시 탄 짐으로 옮겨오나 역시 불이 났다. 불보살님을 경유에 맞지 않게 모셔갔기 때문에 불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다시 원래 위치로 모셔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효암 주불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스님은 6.25 때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해인사 치문반 때에 6.25를 만났다고 했다. 동진 출가를 하고 동산(東山) 선사를 은사로 받은 후에 강원도 입법한 것이다. 농구회를 신은 괴뢰군은 관음전에 책상을 놓고 임시 사무실을 차려서 스님의 신분과 성분을 점검하였다. 줄을 세워서 하나하나 심문 비슷하게 심문을 조사할 때에 어떤 이들은 어렵게 대답해서 따귀를 얻어맞기도 했다. 스님 차례가 되었다.
"왜 출가를 했는가?"
"세상사가 무상하기 때문에 출가를 하였습니다."
스님이 대답하자, 별 말도 않고 대열에서 다음 차례로 넘어갔다. 스님은 그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고생고생을 하다가 문득 밤중에 꿈을 꾸고 옥고사자 여름 속을 트기 위하여 구사일생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때 쌀을 잘 일어서 툭 없이 밥을 잘 짓는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파근중에서 잠을 자다가,
"어서 일어나서 도망쳐라."
하는 공칭(空聽) 소리에 무조건하고 깨어나 뛰어났다고 한다. 이 일은 수행자에게 내려진 불보살님의 큰 가피가 아닐까 생각 해본다.

지옥스님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날 운전이 미숙한 이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크게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제를 주사하려고 하자 스님은 거절을 하면서,
"괜찮으니 그냥 수술을 하시오." 하고 침대 위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렸다.
옛날 인육선인은 아상(我相)이 없는 까닭에 몸이 트락트락 잘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인육하였다는 이야기가 <금강경> 법문으로 나온다. 우리 법부 종사는 자존심 일관 '나'라고 하는 상이 있는 까닭에 바늘만 살짝 닿아도 아픈 것이다.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들어서 아상이 사라져 버리면 아프다고 호소할 내가 없고 호소를 받을 나도 없어진다. 설가모니 부처님이 비수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을 때의 삼매는 해인(海印)삼매였다. 영물삼매, 독경삼매, 주력삼매 등등도 많고 8만4천 삼매 무량묘의를 우리는 의연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와 이해탄이 앞서는 것이다.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림·문병성

지옥스님은 마취제를 맞지 않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거구나 살방이 아물기 전에는 침대 위에서 거꾸로 삼가 해야 하는데 그대로 걸려다녔으니!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선문활요 일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석은 어떻게 꼼꼼하게 달아서 강의하시는지 모른다. 길지 않은 시간에 스님을 모시고 자낼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지금도 감사한다.

20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에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하시고 법신 스님 곁에서 겨울을 나면서 어느 날 밤중에는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부산 서면 거리까지 내려가서 다시 절에 온 적도 있었다. 지금도 여행을 즐기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풍유병환자처럼 밤새 산이고 거리를 헤매었으니 방황치고는 길었다. 마음 마음 한 마음이며, 정말 찾기 어렵네. (계속)

앞으로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집필해 줄 지옥스님(사진)은 1978년 송광사에서 법공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이후 주로 산사에서 공부하면서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를 이어나가며 왔으며 현재 승종학 승강사 승무로 있다. 매년 책으로는 <죽어 가는 아리> <초발심장문> <산승일기> <나마스테> <날마다 좋은 날> 등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기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인)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병해 유혹덕(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과 오래 살 수 있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도 (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술소정액(蘇素精液)」·「술선식(松仙食)」 등 「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까)와 감시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幼),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변이 되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 · 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원의 자금과 불사(佛舍)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원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광(靈符)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 치료(당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기가 하오니, 전국의 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입원 효성양방 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뢰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불로화정 본포